

##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본격화

오는 10월 16일 총선거... 종도 대표 81명 선출

### 9월 22~24일 후보자 등록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종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10일자로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전체 중앙종회의원은 81명이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51명과 직능대표 20명, 비구니대표 10명 등이다. 직선직의 교구별 의석수는 직할교구 4석, 12교구 해인사 3석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교구는 2석씩 배정돼 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교구 재적승인 비구와 본말사 주지, 본사 암자의 감임, 교구본사 1년 이상 국장 소임자 외에 거주승에게 주어진다. 비구니는 재적승이나 주지, 감임 등 요건에 맞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거주승은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동안 각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피선거권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에게 주어지며 입후보자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구선거관위를 통해 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입후보하려면 종무원은 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사직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 직선직과 직능대표에 중복 등록해도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24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에 따라 정원을 넘어서면 경선이 치러지고 정수에 미치지 못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된다.

별도의 선거운동이 필요치 않은 직능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10월 13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비구니 대표 10명은 전국비구니회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신성민 기자**

## “총무원은 직선제 실현 동참해달라”

연대회의, 오는 30일 공청회... 집행부 발표자 위임 제안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대표 발기인 범등·명진·영당 등)가 종도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첫 공청회를 9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대회의가 여는 공청회는 ‘총무원장 직선제가 왜 이 시대의 종단 과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집행부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참여시켜 △바람직한 총무원장 직선제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도덕적인 종단 지도자 선출방법 등을 의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17일까지 주제발표자와 토

론자를 확정했으며,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주제발표자 1명과 토론자 1명의 선정을 위임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12일 현재까지 총무원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도덕적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고 △문종과 계파정치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파승가 행위에 따른 선거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총무원 집행부와 불교광장 소속 스님들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와 뜻을 같이 해달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소통·치유 주제 연수 교육 시행

불교상담개발원, 10월 16~18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스님)이 원활한 소통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을 펼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와 공동으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선센터에서 ‘나와 너, 관계를 깨우는 의사소통·불교와 심리를 활용한 소통과 치유’라는 주제로 조계종 연수 교육 인증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불교 명상을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훈련도 진행된다. 강사로는 최훈동 한병정신건강병원 원장이 나선다. 선착순 6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스님과 불교상담개발원 소속 학생은 15만원, 일반참가자는 20만원이다. 문의 (02) 737-7378 **신성민 기자**

### 〈바로 잡습니다〉

1009호 31면 오퍼니언 발원대 코너에서 가섭 스님의 직함인 ‘前 조계종 교육 부장’을 ‘**조계종 교육국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 부석사 불상 반출 경위, 정부가 조사한다

## 문화재청, 불상 日반출경위 조사위 발족

정부 차원 조사위 구성 세번째

미술사학자·보존전문가 등 참여

보수연대 추적해 반출 시점 추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日반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일본 반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월 11일 검찰로부터 압수된 고려시대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의 반출 경위와 세부 정보 등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불교미술사학자와 보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반환 논란이 벌어진 문화유산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의

문화재반환 교섭과 2010~11년 일본 공내청 소장 의궤·고문서의 반환 협상에 이어 세 번째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은 지난 2012년 10월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한국에 들여왔다가 압수된 것으로 이 중 부석사 불상의 경우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는 한국 학계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이 불상들을 제자리인 한국에 안치하기 위한 불안위원회가 구성돼 일본정부의 반환요구에 맞서 일본현지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불상 안치를 두고 한일간 반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마도에서 이들 불상이 기증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적이 판매돼 한국학계의 반발을 샀다.

문화재청 측은 “검찰이 공식문서를 통해 조사를 의뢰했고 문화재청 내부에서 조사위 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조사위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도난 불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이 많았지만, 관리권을 가진 법원과 검찰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미뤄왔던 것”이라며 “조사위에서는 도난 불상들의 일본 반출 경위에 우선 초점을 맞추며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으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와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등 고려시대 불교미술사 전문가와 보존전문가,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감정관 등 6~7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먼저 부석사 불상의 경우 보존을 위해 수리한 흔적이 많은 만큼 보존과 학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반출 시기를 추적할 계획이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상의 반출 시기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상적으로 일본에 갔다면 이익했다는 기록이 남지만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위 구성 소식에 대해 서산부석사제자리불안위원회, 문화재 환수국제연대 등 민간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사위에 민간단체 구성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前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는 “2011년 조선왕실의궤 환수 당시 민간단체가 물고를 뒀지만 정작 환수가 임박하며 정부가 민간단체 참여를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했다”며 “일본 측 불교계와의 협상 등을 고려해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위 결과에 따라 부석사 불상의 제자리 봉안 및 반환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법원은 부석사 불상의 반출 경위가 판명될 때까지 일본에 돌려줄 수 없다는 ‘반환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불상 2점은 불상의 조성시대와 기본 양식 등의 1차 정보만 파악된 상태로,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조계종 행자교육 교재 개정 발간

교육원, 행자 대상 배포

체계적 일상 교육 기대대

교리·습의 등 10권 구성

한글화로 이해 수월해져

조계종 행자교육에 새로운 교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행자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최근 행자교육교재(사진)를 새롭게 발간했다. 교육원은 우선적으로 지난 8월27일 화향한 47기 수계교육에 입교한 행자들에게 교재를 나눠줬으며, 종단 등록 행자들에게도 교재를 배포했다.

그간 조계종 행자교육은 개별사찰에서 재량이 맡겨 왔다. 〈교리와 실천 1, 2〉 〈습의교육〉 〈독송집〉 〈경구독송집〉 등 기존



조계종이 새롭게 발간한 행자교육 교재. 총 10권으로 구성됐다.

교재가 있었지만 내용이 책 1~2권에 묶여 기술되고 현장 활용도도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요구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교재는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론〉 〈사미음의〉 〈사미니음의〉 〈사십이장경〉 〈조계종사〉 〈행자필수염불〉 〈습의교육〉 〈경구독송집〉 등 총 10권으로 구성됐다.

이들 교재는 기존에 수록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했으며, 부처님 생애와 조계종사 등은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 기존 교재의 오타와 윤문작업도 이뤄졌다. 또한 한글화를 기초로 한문사유를 최소화해 한문이 낮은 행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 질을 박스에 담아 어디든 휴대하고 다니며 공부할 수 있게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현재 교육원은 종단 등록을 마친 행자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배포하고 있다. 남행자에게는 〈사미음의〉를 포함 9권이, 여행자에게는 〈사미니음의〉를 포함 9권이 각각 전달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기존 행자교육 교재를 보완·수정해 새로 발간한 이번 행자교육 교재는 일선 사찰에서 일상 행자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단 표준 교재를 활용한 체계적인 행자교육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티베트 난민 민수씨 귀화 끝내 불허

네팔 출신 티베트 난민 민수씨의 한국귀화가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9월 10일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다와파상(38, 한국이름 민수씨)가 귀화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

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밝혔다.

민수씨는 1997년 한국에 들어와 2006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세 아이를 낳는 등 18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아왔다.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네팔·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에 따른 철거위기에 몰리자 항의하

는 과정에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5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해당 사유로 2013년 귀화신청에서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수씨는 법무부의 귀화불허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귀화불허 처분의 근거인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 스님이 9월 5일 불국사 주지 후보로 선출된 종우 스님(사진 왼쪽)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 담 화 문

### 한국불교태고종 종도여러분!

지난 해 9월,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종도여러분의 염원과 성원에 힘입어 제25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꼭 일 년의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 저는 송구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난마처럼 얽히고 바위처럼 굳어진 관행과 구태를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혼란과 반목의 구시대적 적폐를 재연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하여 총무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종도 여러분들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원로회의 큰스님들의 우려가 담긴 퇴진권고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원로회의 큰스님들의 총무원장을 향한 질타와 경책은 가슴 깊이 새겨 향후 종단 운영의 과정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스님들과 종도여러분!

현재 종단은 막대한 부채로 인한 신용하락과 그에 따른 상환의 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납은 지난 9월 총무원

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종단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의 부채가 왜 발생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납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자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총무행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소납은 작금의 혼란이 한국불교태고종이 전통종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납은 일시적 혼란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때 한국불교태고종은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스님들과 종도여러분!

소납은 당선 이후 지금까지 총무원장이라는 자리에 연연해 현실과 타협하거나 잘못을 보고도 외면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음 집행부는 더 이상 굴곡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 종단 발전을 위한 중책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다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몇몇 소수의 스님들이 종단을 위락파락했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더 이상 편법이 통용되는 총무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총무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불교 태고종이 전통종단으로서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스님들과 종도여러분!

한국불교태고종은 지금 새로운 미래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안주할 것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태세력에 의해 종도들의 개혁열망이 또 한 번 무너진다면 한국불교태고종은 더 이상 회생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소납은 한국불교태고종이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종도여러분들께서도 그 길을 위해 원력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소납은 다시 한 번 종단발전을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종도여러분께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8년 9월 11일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산